

박사과정을 마무리 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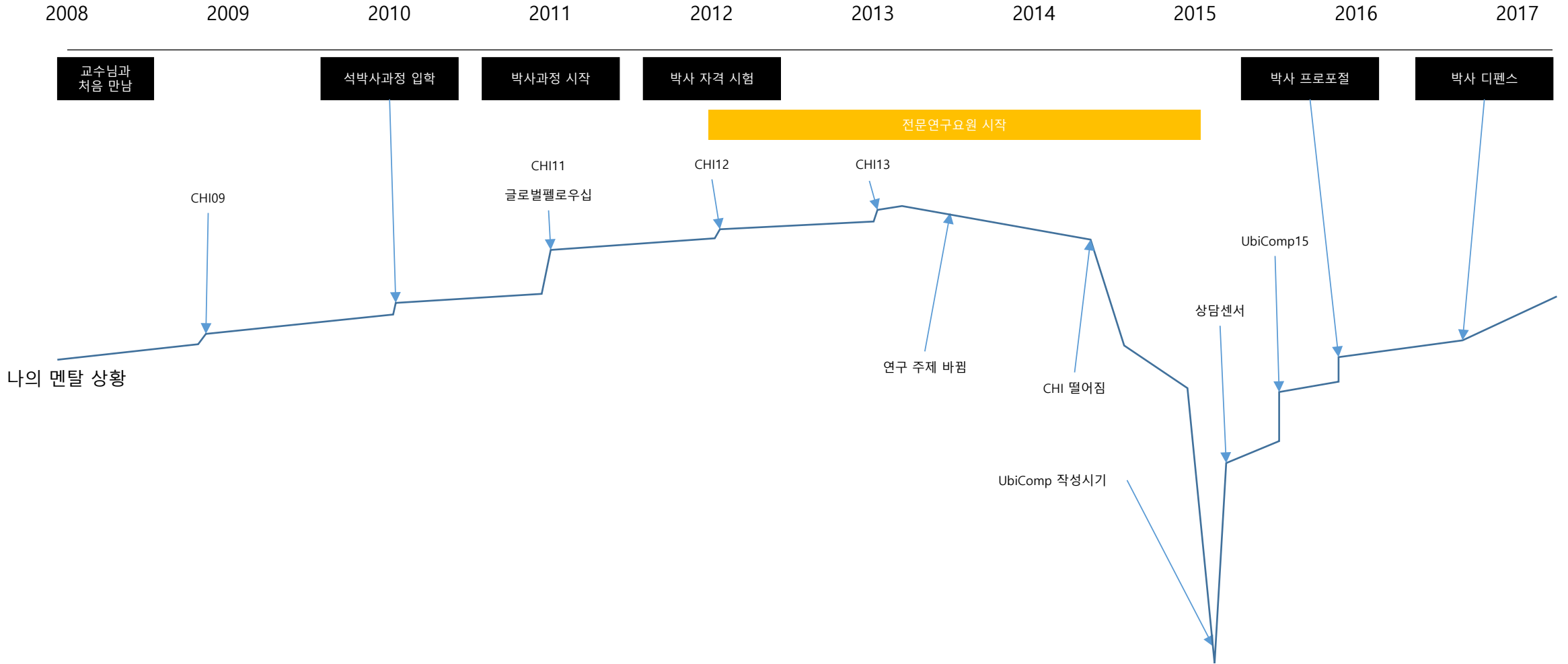
170210

우종범

주의사항

본 내용은 제가 겪었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라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나의 박사 과정



연구주제를 찾기 위한 노력 (좋은 연구 주제의 조건)

- 본인이 궁금한가?
 - 자신이 정말 알아내고 싶은 문제를 연구해야 5년 정도 그 문제에 매달릴 수 있는 끈기가 생김
- 연구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인가?
 - 보통 한번 잘 된 연구 방법으로 계속 하려고 하는데 시야가 좁아질 수 있다.
- 4~5년 뒤에도 존재할 분야인가?
 - 너무 트렌디한 분야는 금방 이슈가 없어질 수 있다.
 - 내가 전문가가 될 분야이고 나중에 내 밥줄이 될 수도 있다.

연구주제를 찾기 위한 노력 (좋은 연구 주제의 조건)

- 지도교수님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 너무 분야다 다르다면 지도교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울 수 있다.
 - 딱 맞는 분야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지도교수님도 공감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 자신이 주도적으로 끌고가고 싶은 만큼 궁금한 주제라면 교수님과 잘 상의해보는게 좋을 것



개별 미팅/PM을 할 때 참고 할 점

- 본인이 최종 책임자라고 생각하고 진행
 - 교수님이 안계셔도 본인이 모든 걸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책임감 있게 진행하는게 좋음 (논문작성, 연구진행)
 - 본인의 세부 분야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음
- 미팅 때에도, 대부분 결정을 하고 진행한 결과물을 보고 하는 형식.
 - 교수님은 PM 보다 프로젝트를 더 생각하실 시간이 없음
 - 대신 결정에 대한 충분히 정당한 근거들을 제시해야 됨 (본인 스스로 확신이 있는 방향)
 -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나 본인이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는 옵션들과 선호하는 옵션을 함께 가지고 가서 논의
 - 실험 설계 같은 경우에는 파일럿까지는 혼자 돌려보고 가면 효율적인 진행이 가능
 - 교수님은 내가 보지못하는 헛점을 더 큰 뷰에서 보고 지도를 해주심 (내가 잘못 가고 있으면 바로 잡아주실 거라거 믿고 진행)

개별 미팅/PM을 할 때 참고 할 점

- 교수님이 한가하신 시간을 확인놓기
 - 특히 논문 작성할 때, 언제까지 draft를 들릴것 같으니깐 이때 시간을 비워주세요. 라는 식으로 미리 말씀드리는게 좋음.



©Foki



©fokanaritari

언제 가장 힘들어 지는가?

- 연차가 올라갈 수록 힘들어짐 (체력적, 멘탈적)
 - 나이가 들어서 / 연구기간이 길어지는데 성과는 안보여서 /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가 없어서
 - 4년차 이후 부터는 급격히 힘들어짐



언제 가장 힘들어 지는가?

- 2015년 2월 설날 CHI에서 떨어진 논문을 UbiComp에 작성하고 있을 때
 - 그 전에도 몇 번 논문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져있는 상태
 - 설 연휴에 혼자남아서 논문 작성 (1주일동안 사람이랑 대화를 못 해봄)
- 교수님의 기준을 절대로 못 넘을 것 같았을 때
 -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연구들을 위한 원칙들을 절대 만족을 못 시킬것 같았다.
 - 내 자신의 한계로 느껴졌다. 잘 해오다가 더 이상 성장을 할 수 없었음.
 - 낮은 자존감, 이만큼 배웠지만 전혀 할 줄 아는게 없는 느낌, 그동안 시간을 헛 보낸 것 같은 느낌



언제 가장 힘들어 지는가?(슬럼프)

- 내가 왜 박사를 하고 있나? 박사과정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나?
 - 연구를 해보고 싶어서, 연구가 재미있어서, 교수님이 좋으셔서, 군대도 해결할 수 있어서
- 박사과정을 끝내는 것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나?
 - 연구를 해 보니 내 노력 대비 결과가 바로바로 보이는 일들을 선호 (연구는 결과가 보이기 까지 오래 걸림)
 - PC 미팅 참석 후, 학계가 아닌 실제 서비스를 만들고 제공하는 일을 해보고 싶음
 - 학계로 진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수료도 가능한 옵션
 - 하지만, 평생 후회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

언제 가장 힘들어 지는가?

- 박사과정의 기회비용

- 안정적인 직장, 금전적 안정, 좋은 집과 좋은 차, 결혼, 아이. (비슷한 조건으로 박사를 안 온 사람과 비교)
- 나에게 박사과정은 금전적 안정, 결혼, 아이를 포기하고 택할 만큼 중요한 가치인가?
- 이 기회비용은 연차/나이가 많을 수록 더욱 커진다.

“

어쩌면 박사 과정에 입학한다는 것은 안정적인 직장과 수입, 배우자와 혹시나 모를 내 아이를 포기하고 온 길일 수도 있었다.

언제 가장 힘들어 지는가?

- 상담센터를 다니면서 수료로 끝내는 것도 진지하게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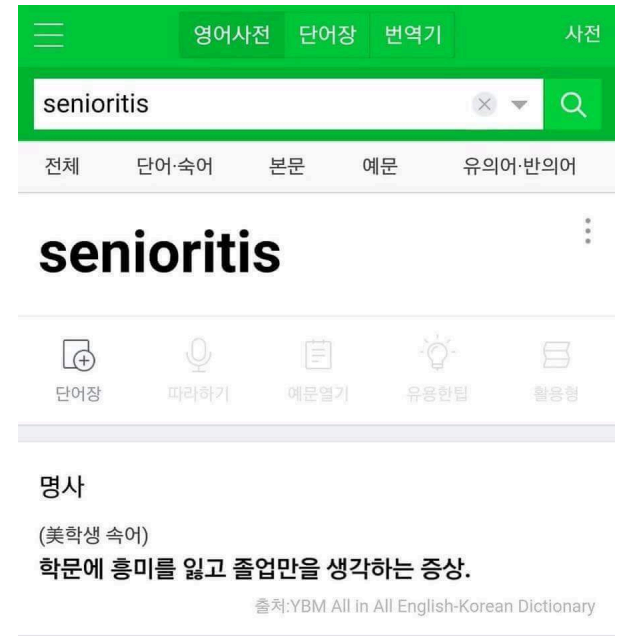
- UbiComp 합격 + 수상
 - 멘탈이 조금 회복 됨. 뒷심이 조금 생겨서 좀 더 해보기로 함
 - 학회 발표 하면서 좀 더 내 연구와 내 실력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짐
 - 이미 되돌리긴 매몰비용이 너무 커서, 어쨌게든 잘 끝내도록 노력함.

-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담센터를 다니면서 멘탈 관리

- Ninja Block 파산, 손가락 골절, 개한테 물리는 역경을 잘 넘기면서 해피엔딩

박사 과정 후반부, 디펜스까지의 유의사항

- 내 모든 생활의 기준은 졸업연구에 있는게 좋음
 - 졸업 연구 이외의 활동들을 최대한 자제 (학과 행사, 유흥, 가족행사, 연애)
- 한학기 졸업을 밀리면 내가 잃는 가치들을 생각하라
 - 등록금, 잠재적 월급, 논문, 정신적 신체적 데미지, 가족의 기대, 새로운 경험의 기회
 - 1학기 등록금/생활비가 대략 600만원정도 더 소요
 - 대기업 입사 기준으로 한학기가 밀리면 4천만원 정도를 손해본다고 생각
- 그러면서 체력, 스트레스 관리를 꾸준히 해야함
 - 너무 일만 하면 스트레스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놀 때는 열심히 놀아야 됨.
 - 연구실을 벗어나서 놀아야 됨 (여행, 자전거, 보드게임)



The screenshot shows a mobile dictionary application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green navigation bar with icons for a menu, '영어사전' (English Dictionary), '단어장' (Vocabulary), '번역기' (Translator), and '사전' (Dictionary). Below this is a search bar containing the word 'senioritis'. Underneath the search bar, there are tabs for '전체' (All), '단어·속어' (Word·Slang), '본문' (Main Text), '예문' (Example), and '유의어·반의어' (Synonym·Antonym).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the word 'senioritis' in large bold letters. Below the word, there are five icons representing different features: '단어장' (Vocabulary), '따라하기' (Follow), '예문열기' (Open Example), '유용한팁' (Useful Tip), and '활용팁' (Application Tip). The definition section shows '명사' (Noun), '(美학생 속어)' (US Student Slang), and the definition '학문에 흥미를 잃고 졸업만을 생각하는 증상.' (A symptom of losing interest in academics and only thinking about graduation). At the bottom, it says '출처:YBM All in All English-Korean Dictionary'.

좋은 연구를 효율적으로 하기

- 돈과 시간이 많다면 굳이 효율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간/돈이 제한되어 있다.
- 시간이 지날 수록 멘탈은 힘들어져서 마라톤을 지속하기 점점 더 힘들어 진다.
- 연차초과자(4년 이후)가 되면 멘탈 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힘들어짐
 - 기숙사 쫓겨남, 등록금 올라감, 박사 연구비 없어짐, BK 포함 안 됨, 박사 기본 TA 수당 안나옴
 - 4년차가 넘어가면 멘탈이 급격하게 힘들어짐
 - 기회비용 한학기당 계속 누적됨

좋은 연구를 효율적으로 하기

- 4년 동안 멘탈이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전략이 필요함
 - 가시적인 성과 + 졸업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전략을 세워두는게 좋음
 - Small win을 밟아가며 자신의 성장을 느끼는 것도 한 방법
 - 처음부터 높은 베뉴로 타겟팅해서 떨어지기 보다는, 자신의 디딤돌들을 만들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
- 졸업 후의 진로도 함께 생각하면서 전략을 짜는게 좋음
 - 국내 교수 - 저널 실적 중요
 - 기업 - 관심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이슈, 기술을 습득, 관련 프로젝트 진행

조교님의 빠른 졸업을
기원해 주세요!



박사를 들어오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 책임감, 마음가짐의 차이
 - 지시 받는 사원이 아닌 스스로 없는 문제를 찾고,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함
 - 프로젝트의 최종책임을 질 수 있는가? 기본을 지키는가?
- 박사 후 나의 진로
 - 졸업 후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지 좀 더 클리어 했다면, 박사과정에서 좀 더 목표의식을 가졌을 것
 - 교수 -> 저널
 - 창업 -> 기술창업 프로그램 혹은 졸업연구를 아이템으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 박사과정의 기회비용
 - 금전적 안정, 결혼, 나의 아이 vs 나의 성장, 박사학위, 한 분야의 전문가
 - 다른 진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더 신중히 알아보았을 것 (기업 인턴)

모두들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 !!

2017-02-10 JB